

배포일시	2019.01.15(화)		
보도요청	배포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유전자검사센터 윤홍란 센터장 (042-930-8768)	담당자	기획팀 차장 박서영 (042-930-8504)

바이오니아, 한림병원과 유전자검사서비스(진투라이프) 공급 계약 체결

- 유전자검사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
- B2C의 고객만족도를 발판으로 B2B로 비즈니스 채널 확대
- 2019 고객감동경영대상, 전문서비스-바이오 부문 대상 수상

(주)바이오니아(대표이사 박한오)는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과 유전자검사서비스(진투라이프, Gene2Life™)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진투라이프는 바이오니아가 출시한 유전자검사 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DTC 허용한 탈모, 비만, 피부 등과 관련한 12가지 항목 검사가 가능하다. 누구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에 기초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림병원은 조기 암 진단 장비 PET-MRI 장비를 갖춘 암 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등 질 높은 진료와 고객 중심 서비스를 실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진투라이프 서비스 계약을 통해 건강검진 고객에게 차별화된 검진 결과를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구현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유전자검사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질병의 진료가 아니라 발병 이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진투라이프 서비스는 신뢰성 높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뷰티·헤어·헬스 토탈 솔루션을 3일 이내에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춰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유전자검사의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9일 '제13회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전문서비스-바이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인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사장은 “전 세계 DTC 시장 규모는 2022년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비즈니스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니아는 작년 아시아 최초로 에이즈 바이러스 진단 키트에 대해 유럽 체외진단 의료기기 최고위험등급(CE-IVD List A) 인증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세계 최초로 지카다중진단키트 WHO EUAL 등재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유전자 전문기업이다.

첨부사진:



<사진제공=바이오니아>